



이상훈(왼쪽) 해병대사령관과 정진영 경희대학교 부총장이 27일 해병대사령부에서 학군 교류협정 체결식을 한 뒤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부대 제공

주경야독 하는 간부들을 위해...

해병대, 경희대와 학·군 교류협정 체결

해병대가 간부들의 주경야독을 돕기 위해 경희대학교와 손을 맞잡았다. 해병대사령부는 27일 이상훈 사령관을 비롯한 주요 직위자와 정진영 경희대 부총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군 교류협정(MOU) 체결식을 했다.

이번 협정으로 해병대 간부들의 경희대 석·박사 야간학위 과정 입학이 보다 수월해졌다. 또 곧 진행될 경희대 계약학과 협약이 체결되면 입학간부들은 학비의 50%를 감면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계약학과는 부대 인근 학교나 부대 내에 강의실을 설치해 교수가 출장 교육을 제공하는 제도로, 이를 도입하면 수도권과 떨어진 포항 지역의 간부들도 경희대의 강의를 수강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협정을 통해 경희대가 제공하는 도서기증 사업, 음악회, 태권도 시범공연, 세미나, 지식포럼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받아 장병들의 지식창출과 참여 기회도 넓히게 됐다.

이 사령관은 이날 체결식에서 “경희대와의 학·군 교류협정은 해병대 인재개발 양성에 큰 성과를 줄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하고 활발한 교류를 통해 양 기관이 함께 발전하는 계기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맹수열 기자

해군 유도무기체계 발전 방향 모색

해군, 국과연과 유도무기 기술 협의회

해군과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는 27일 해군 본부에서 해군 유도무기 연구 개발 증진 및 기술교류·협업 강화를 위해 ‘제4차 유도무기체계 기술 협의회’를 개최했다.

조영삼(소장) 해군본부 군수참모부장과 황철호 국과연 1기술연구본부장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수명 주기간 유도무기 성능 보장대책과 전투탄 실사분석 강화 등 해군 유도무기체계 발전을 위한 주제 발표 및 토의가 진행됐다.

조 부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합동전장에서 기여하게 될 핵심 타격수단인 해군 유도무기의 작전 운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발전 방향과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국과연과 밀접한 기술협력을 통해 해상 유도무기의 성능과 작전 운용성을 향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군과 국과연은 지난해부터 연 2번씩 정기적인 유도무기체계 기술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5차 협의회는 내년 5월 대전 국과연에서 열릴 예정이다.

맹수열 기자 guns13@dema.mil.kr

실전적 위기극복능력·극기심 함양

해군순항훈련전단 사관생도 남태평양 해상서 ‘밤샘훈련’

해군의 미래를 짊어지고 해외 각지를 돌며 장교로서의 소양을 기르고 있는 해군순항훈련전단 소속 71기 해군 사관생도들이 남태평양 해상에서 ‘밤샘훈련’을 실시했다.

전단은 생도들이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1박2일 동안 직무수행능력 및 위기극복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무수면 철야훈련을 실시했다고 27일 전했다.

이번 훈련은 임관을 앞둔 생도들

이 전시 상황을 체험하면서 강인한 전투수행능력과 극기심을 키우기 위해 진행됐다. 생도들은 대공·대함·대잠전과 손상통제 등 부여된 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처리하는 방식으로 훈련에 임했다. 전단은 직무마다 전문 장교와 부사관들을 배치해 직무수행 평가를 실시, 실습효과를 높였다.

전투배치에 임한 생도들은 적 항공기, 함정, 잠수함 접촉에 따른 탐지, 추적, 무장선택 및 발사, 전과 확인 등 대응절차훈련을 실시했다.

또 함정 기관 및 발전기 고장, 화재, 파공, 동력 상실, 정전 등 전투 중

일어날 수 있는 손상 상황을 처리하는 손상통제훈련을 통해 위기극복능력도 키웠다. 이 밖에도 무선통신, 시각신호, 전술기동, 해도기점, 천문항해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실습을 함께했다.

훈련에 참가한 이대현 생도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서 직접 장교의 직무와 역할을 수행해 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완벽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신감과 용기가 생겼다”며 “남은 훈련들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초급장교로서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맹수열 기자



2016년 해군순항훈련에 나선 71기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이 무수면 철야훈련 중 디젤기관실에서 파이프라인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제공=남기태 상사

“값진 승리 몽금포작전을 알았습니다”

해군인방사 독서 동아리 인천 지역안보 문화 탐방

해군인천해역방어사령부는 26일 주둔지인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장병들에게 알리기 위해 유적지 탐방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탐방은 장병들이 지역 사회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정립하도록 계획됐다. 탐방에는 부대 독서코칭 동아리 장병 20명이 참가했다.

탐방은 월미공원에 설립된 해군 관련 전적 기념물 견학으로 시작됐다. 장병들은 최초의 대북 응징 작전인 몽금포작전의 성공을 기념해 2015년 건립한 몽금포작전 전승비와 해군 첩보부대의 희생과 공훈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해군 첩보부대 충혼탑을 돌아보며 선배들의 애국심과 희생정신을 기렸다. 또 최초의 개항장이었던 인천 개항장의 유물들을



인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기 위해 문화 탐방에 나선 해군인천해역방어사령부 장병들이 근대건축전시관에서 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부대 제공

보존하고 있는 인천개항박물관과 인근 근대건축전시관을 방문, 인천의 역사문화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는 시간을 보냈다.

탐방에 참가한 경승현 상병은 “내가 지키고 있는 인천에 대해 잘 알지

못했는데 탐방을 통해 인천의 역사적 중요성을 배우게 됐다”며 “앞으로 인천의 바다를 사수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맹수열 기자 guns13@dema.mil.kr

■ 편집=남기선 기자